

## 한 마음으로 힘과 생각을 모아 조림초, 고인돌 만들기

지난 10일 정천면 조림초(교장 김민자)에 고인들이 세워졌다.

조림초는 올해 8회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가 사는 지역의 선사시대 문화의 이해와 체험’ 프로그램의 한 과정으로 고인돌 만들기를 진행했다.

정천면의 수몰된 마을 여의곡마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적 중에는 상석을 옮기기 위한 기차길 같은 상석이동로가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됐다. 상석이동로는 고인들의 상석인 커다란 돌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조림초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게 되었다.

이날 고인돌 만들기는 가족마다의 소망을 작성해 타임캡슐상자에 담은 것으로 시작했다. 작은 돌들을 옮기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도구마련에 고민하도록 하고, 4명이 한 조가 되어 직접 작은 돌들을 운반해 석실을 만들었다. 이어 상석이동로 형태로 나무를 놓고 굴림목을 옮겨가

며 고인돌셀매 위에 올려진 상석을 조림초 유치원생부터 전교생이 함께 끌어당겼다. 마침내 이동된 상석은 조림초의 한 화단에 완성이 됐다.

조림초 김민자 교장은 “아이들이 과학적 원리와 선사시대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는 기회였을 것”이라며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한 마음이 되어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이루었다는 성취감에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학생들의 힘이 모이니 그 힘을 무시 못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타임캡슐은 학생들과 상의 후 6학년 기준으로 앞으로 25년 후인 2044년 4월 4일 오후 4시에 모여 함께 개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토피 안심학교인 조림초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교생 가족이 함께 1박 2일로 임실 상관편백숲과 치즈체험마을에서 아토피가족캠프를 진행했으며, 고인돌 만들기는 10일 오전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진행했다.

홍육진 기자



고인돌 윗돌(상석)을 옮기기 위해 학부모, 학생, 교직원, 주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